

기독교 성직자 의례복식에 관한 연구

이 순 홍 · 이 경 순*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배화여자대학 의상과*

A Study on the Liturgic Vestments of Christian Priests

Soon-Hong, Lee · Kyung-So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

Dept. of Clothing, Baewha Women's Junior College.*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1) enforce the necessity of liturgical vestments though clarifying the symbolic meaning, function and ritual importance of Christian liturgical vestments of ministers, 2) figure out the process of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liturgical vestments of ministers, 3) clarify the liturgical year, symbolic patterns and colors of the liturgical vestments, and 4) study on the status of current liturgical vestments worn by protestant ministers.

Based on the catholic and the protestant churches, the scope of the study was decid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along with research on documents and materia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liturgical vestments of priests in the Old Testament era had to be worn by stipulated rules and instructions to perform duties.
- 2) The liturgical vestment of the catholic church are very various in their kinds and has their unique origins and meanings.
- 3) The symbolic patterns, colors and meanings used by liturgical years of christianity.
- 4) Design on the liturgical gown and stole of christian ministers.

Key Words : liturgical vestments(Geneva gown, pulpit gown, stole), liturgical year, symbolic patterns and colors ; 의례복식(제네바 가운, 풀펍 가운, 영대), 교회력, 상징 문양과 색상.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服飾은 視覺的 혹은 非言語的(non-language) 상징으로, 상대방에게 意思를 傳達하는 無言의 言語(non-verbal language)¹⁾ 중의 하나이며, 자기 자신의 役割 및 地位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지각되는 狀況을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며²⁾, 服飾 그 자체로서 많은 言語와 象徵的 表現을 하고 있다.

人間이 창조된 이래로 衣服에 대한 關心은 地理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變化되어 왔다.

宗教는 보이지 않는 神과의 關係 및 영혼의 차원과 같은 抽象的 概念을 다루는 것으로 象徵的 表現을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인류의 歷史와 함께 시작된 宗教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內面的 神性的 表現을 걸고로 나타내는 祭祀의 행위가 있어 왔으며, 이에 따른 宗教儀式服, 즉 전례복이 전하여져 왔다. 특히 특정 종교에서 聖職者가 입는 典禮服은 宗教的 意味 및 價値觀을 可視的으로 나타내려는 뚜렷한 目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많은 宗教的 意味와 暗示를 象徵하고 있는 동시에 神과 人間과의 교제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典禮服에 사용된 象徵 文樣과 色彩는 의식 자체의 기쁨과 슬픔을 象徵的으로 표시함으로써 참여자로 하여금 心理的 共感을 불러일으키는 役割을 한다.

基督敎는 2,000년의 傳統을 지닌 카톨릭(catholic)교와 1521년 루터의 宗教改革에 의하여 새로이 조직된 프로테스탄트교(protestant)교로 대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카톨릭교를 구교 또는 天主教, 프로테스탄트교를 신교 또는 改新敎라고 한다.

오늘날 基督敎 중 의식적인 교회(liturgical church)

인 카톨릭 교회에서는 2,000여년의 傳統을 고수하여 내려온 典禮服이 있어 세계 각지에서 모두 같은 形式을 傳統으로 입고 있다. 그러나 비 의식적인 교회(non-liturgical church)인 개신교에서는 規定된 儀式服이 없이 아주 단순한 形態의 가운(gown)을 着用하거나 平常服을 입고 禮拜儀式에 임하고 있다. 安定과 정착기를 맞이한 개신교는 2,000년대의 韓國敎會 發展을 위하여 禮拜儀式의 更新과 더불어 禮拜表現 方法 및 聖職者들의 典禮服에 대해 整頓하여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즉 基督敎 聖職者 禮服 變遷에 대한 자료들을 총정리하여 人類 服飾史 研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고, 아울러 새 시대에 알맞는 禮服을 研究 開發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研究의 의의는 새로운 禮服을 통하여 禮拜의 분위기를 더욱은 체롭게 하여 주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하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되는 동시에, 宗教 服飾史의 인 측면에 도움을 주며, 개신교 예복 디자인 開發과 發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基督敎 중 카톨릭교와 개신교를 區分하여 禮典服의 史的 變遷과정을 조사하였으며, 禮典服 着用實態는 우리나라 개신교 중 監理敎, 長老敎, 聖潔敎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따른 새로운 성직자 예복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본 研究의 方法은 文獻 및 調查研究 方法을 같이 실시하였다.

II. 基督敎 聖職者 禮典服의

理論的 背景

1) Marilyn J. Horn,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p.158.

2) Marilyn J. Horn, Lois M. Gurel, op. cit., p.159.

1. 禮典服의 象徵的 意味와 機能

禮拜는 英語로 “worship”으로 表示되는데 “worship”은 “weorthscipe”에서 由來된 것으로, 이 말의 뜻은 “尊敬과 尊貴를 받을 價値가 있는 者”³⁾이다. 이 말의 뜻을 좀더 具體化 시키면 “하나님께 最上의 價値를 돌리는 것 (to ascribe to Him supreme worth)”을 意味한다.

한편, 教會에서 使用되는 禮式(religious rites)이라는 用語는 宗教的 儀式과 같은 意味라고 볼 수 있으나 特別히 一般 儀式 및 儀禮(rites)의 基督化된 形態를 指稱함을 볼 수 있다. 이는 禮拜儀式, 聖禮典, 任職式, 奉獻式, 婚禮, 葬禮, 慶祝禮, 季節에 관한 禮式과 生業에 관한 禮式을 包含하는 包括的 概念으로 使用되고 있다.⁴⁾

禮拜를 主觀하는 聖職者는 하나님과 人間과의 交際의 行爲를 주도하는 役割을 하여, 禮拜儀式을 行할 때 禮服을 着用하여 왔다. 이 禮服을 着用하는 것은 單純하게 衣服이라는 概念을 떠나서 그들의 精神世界를 衣服으로 表現하고자 하기 때문에 神性과 絶對性을 強調해야 할 必要에 의해 着用하는 것으로 속된 一般 衣服과는 區別되는 옷이라고 볼 수 있다.⁵⁾ 따라서 禮服을 입을으로서 宗教的 職務를 나타내며 하나님과 世俗 世界와의 증보적 關係를 象徵하게 된다.⁶⁾

結論적으로 基督教 禮拜에 있어서 聖職者의 禮典服은 禮服을 통해서 信仰과 教會의 權威를 誇示하는 機能을 하며, 禮典服에 사용된 文樣과 色彩를 통해 기쁨, 슬픔 등을 나타내는 役割을 한다. 또한 禮

典服의 着用은 단순한 衣服의 概念을 떠나서 宗教的인 儀式世界를 象徵적으로 表現해 줌으로서, 禮拜儀式에서 다른 禮拜要素인 音樂, 說教 및 다른 象徵과 함께 매우 重要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2. 禮典服의 聖書的 考察

聖書에 나타난 衣服 중 聖職者의 衣服을 舊約聖書時代와 新約聖書時代로 區分하여 調査하였다.

1) 舊約聖書(Old Testament) 時代의 禮典服

舊約聖書時代라고 함은 人類 歷史가 始作된 天地 創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誕生하기 約 400年 前까지를 말한다.

舊約聖書의 聖職者는 祭司長으로 指稱되고 있는데 祭司長이라는 말은 “코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중”이라는 뜻이다.⁷⁾ 사역 자로서의 祭司長은 百姓의 代表者로서 하나님께 祭祀를 드리며, 百姓들을 위해 仲介의 祈禱를 드리는 仲裁者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職務를 遂行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으로 聖所의 司祭였다.⁸⁾

祭司長은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祭祀儀式을 행한 公職者이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仲裁者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使命이 있었으며,⁹⁾ 그 役割과 職位에 따라 服飾을 다르게 着用하였다.

祭司長의 禮服은 많은 規制와 指示를 받아 만들어졌으며, 祭司長들은 職務의 遂行을 위해서 반드시 禮服을 갖추어 입어야 했다. 이것은 禮服이 그리스

3) Raymond Abba, 허경삼 역,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4), p.9.

4) 총회 예식서 수정 위원회 편, 표준 예식서, (서울: 대한 장로교 출판사, 1988), pp.5-25.

5) 김현, “전례부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 사범 대학 「논문집」 제20집, (1982), p.208.

6)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6), p.154.

7) 이기문 외 6인 편집, 기독교 대백과 사전, 제12권, (서울: 기독교문서, 1988), p.1112.

8) 정인찬 편, 성서대백과 사전, 제7권, (서울: 기독교지혜사, 1984), p.479.

9) 조선출, 그리스도교 대사전,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2), p.923.

도의 義를 象徵하므로 그리스도의 義로 衣服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意味한 것이다.¹⁰⁾ 大祭司長의 독특한 의상은 다음과 같았다.¹¹⁾ : 그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석류알과 교대로 하여 금방울들이 달린 청색실로 잔 의복 ; 청색, 자색, 홍색 옷감과 금실을 섞어서 잔 고운 아마포로 된 에봇 ;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여섯 이름을 새긴 귀한 돌이 달린 이 에봇의 두 어깨걸이, 에봇과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정방향의 가슴판 또는 가슴받이(이것은 에봇에 부착되었다). 이 가슴판은 세 개의 귀한 돌들이 각각 달린 네 개의 줄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귀한 돌들 위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가슴판은 고대의 거룩한 제비인 우렁과 돌뭍을 넣기 위하여 주머니와 같은 형태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마포로 만든 터어번이 있는데 거기에는 “야훼께 거룩”이라 새긴 금관 또는 금판이 부착되었다. 이러한 의상은 大祭司長의 仲裁的인 職責을 象徵하며 여러 色으로 이루어진 옷감, 금, 귀한 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가슴판 또는 가슴받이는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나타냈다. 하지만 大祭司長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의 제복을 벗고 다만 아마포 옷들, 즉 외투 또는 겹옷, 고의, 띠, 터어번을 착용한다. 한편 祭司長의 제복은 겹옷, 고의, 터어번(이것들은 모두 흰 아마포로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흰 아마포 띠로 이루어져 있었다.

2) 新約聖書(New Testament)時代의 禮典服

新約聖書時代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B.C. 4年에서 A.D. 30年 예수 그리스도의 復活 後 約 70年間 使徒들의 傳導 時期를 包含해서 約 100年間을 말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政治的으로 로마의 支配下에 있던 時期이다.¹²⁾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復活을 契機로 새로운 形態의 基督教가 始作되었는데 舊約聖書에는 祭司長들의 성전을 中心으로 한 祭祀儀式이 예수 그리스도의 出現으로 舊約聖書時代와 같은 大祭司長 制度가 필요없게 되어 祭司長들의 祭服 역시 必要하지 않게 되었다. 최초의 教會는 使徒들이 中心이 되어 세운 教會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부터 1세기 말까지 約 70年間 지속했던 초대 교회를 말하는데 당시 使徒들의 옷은 平信徒 옷과 구별되지 않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使徒들은 平常服을 입고 성전이 아닌 회당이나 다락방에서 律法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만찬을 행하였다. 신앙성서 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衣服에는 히마티온, 키톤, 플라미스, 스톨 및 신돈 등이 있었다.

3. 教會曆과 象徵 文樣 및 色彩

“教會曆”이란 英語로 “church year”¹³⁾, “christian calendar”¹⁴⁾, “liturgical year”¹⁵⁾ 등으로 表現된다. 教會曆은 世俗曆(secular calendar)과 區別되는 또 하나의 달력(sacred calendar)을 意味한다기보다는 教會가 1年 週기로 지키는 節氣들을 意味하며, “基督教 節氣” 혹은 “教會節氣”라고 表現한다.¹⁶⁾

教會曆에 나오는 節氣를 文樣과 色彩로 나타내며 그 상징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0) 메튜 헨리 저, 황강욱 역, 성서 주석 시리즈③ 출애굽기, (서울: 기독교문사, 1979), p.425.

11) 이기문 외 6인 편집, 앞의 책, 제13권, p.1114.

12) 정인찬 편, 앞의 책, 제 8권, pp.766-790.

13) 이기문 외 6인 편집, 위의 책, 제2권, p.101.

14) The Catholic Encyclopaedia, vol. III, (N. Y: The Encyclopedia press, Inc., 1913), p.158.

15)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VIII,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67), p.916.

16) 유선호, 교회력과 색깔 사용의 위험, (서울: 하늘기획, 1966), p.21.

1) 降臨節(Advent)

降臨節은 教會曆의 첫 시작이고, 聖誕節 前 4週問으로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主日을 降臨主日이라고 하고 이 날부터 降臨節이 始作되며,¹⁷⁾ 대강절, 대림절(제 48, 49, 50, 51주)이라고도 한다.

降臨節이란 말은 '옴', '도착'을 나타내는 라틴어 'Adventus'에서 由來하였고,¹⁸⁾ 예수 그리스도의 誕生 즉 하나님의 아들이 人間의 形狀으로 나타날 것¹⁹⁾과 하나님에 의해 약속되고 예언자들이 언급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²⁰⁾을 意味한다. 상징 문양으로는 태양과 키로, 메시아적 장미, 하나님의 어린양, XP와 AΩ 등이 있으며, 예전 색깔은 보라색이다.

2) 主顯節(Epiphany)

1月 6日에 지키는 主顯節(제 2주-10주)은 顯現節 또는 공현절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肉身을 입고 나타나신 것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에 의해 메시아성(messiahship)을 나타내신 것을 기념하는 節氣이다.²¹⁾ 따라서 예수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 것처럼 世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기독교인들이 淸 敎의 使命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는 節氣이다. 상징 문양으로는 별, 세 왕관, 세가지 선물 등이 있으며, 예전 색깔은 흰색이다.

3) 聖誕節(Christmas)

聖誕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로 人類의 救援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심을 특별히 기념하는 時期이다. 聖誕節은 聖誕日인 12月 25日에서 1月 5日(제 52주)인 사순시기 전까지이다. 상징 문양으로는 말구유, 불타는 덩불, 호랑가시나

무 화환 및 전령모습의 천사 등이 있으며, 예전 색깔은 흰색이다.

4) 四旬節(Lenten)

四旬節은 復活節을 準備하는 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禁食과 補贖으로 재를 잘 지키는 것이며, 受難節(제 11주-15주)이라고도 한다. 상징 문양으로는 고난의 십자가와 종려나무, 가시 면류관과 못 및 십자가와 감는천 등이 있으며, 예전 색깔은 보라색이다.

5) 復活節(Easter)

復活節은 그리스도께서 受難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復活하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復活節(復活週日-오순절 전야 제 16주)은 基督教 節氣 중 가장 重要하고도 기쁜 節氣이다. 상징 문양으로는 나비, 태양과 XP, 십자가와 면류관 및 부활절 백합 등이 있으며, 예전 색깔은 흰색이다.

6) 五旬節(Pentecost)

五旬節은 教會의 탄생 기념일이며 새 계약의 날이며, 聖靈 降臨節(제 17주-47주)이라고도 한다. 聖靈을 象徵하는 붉은 색을 예전 색깔로 使用하며, 상징 문양으로는 비둘기, 일곱갈래불꽃, 일곱등불 등이 있다.

7) 그 밖의 記念日들

改新教會에서는 앞에서 살핀 주님의 節氣들 외에도 基督教의 歷史와 傳統에 따른 몇 가지 중요한 記念日들을 지키고 있는데, 秋收感謝節, 宗教改革日, 어린이 週日, 어머니 週日 등이다.

17) 이기문 외 6인 편집, 앞의 책, 제1권, p.330.

18) 이기문 외 6인 편집, 위의 책, p.330.

19) 성감식 편, 그리스도교 대사건,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2), p.35.

20) 정철범, "教會力の 이해와 실천",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1), 11월, pp.34-41.

21)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II, p.221

Ⅲ. 韓國 基督教 聖職者 禮典服

1. 카톨릭교

한국 카톨릭교 聖職者들은 敎會 창설 당시부터

100여 年間 정부당국으로부터 迫害가 심하여 典禮服을 着用할 수 없었고 1886년 한불 통상 수호 조약을 계기로 宗教의 自由가 주어지면서 로마의 카톨릭교 典禮服을 導入하여 着用하게 되었다. 카톨릭교회의 典禮服은 種類가 다양하고 각기 독특한 由

<표 1> 카톨릭교 의복 특성 및 의미

특성, 의미 종별	의복특성	의미
수 단	캐삭이라고도 하며 긴 소매를 가진 몸에 험렁하게 맞고, 길이는 목에서부터 몸 전체를 덮으며 앞 중심이 열려 있는 로만 칼라를 가지고 있으며 앞 중심에 30-40개의 작은 단추가 달려 있다.	하나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고 속세에서 죽었다는 표시이며, 흰 로만 칼라는 독신의 정결을 나타내는 성직자임을 의미한다.
시 마	작은 케이프가 달린 긴 걸 옷으로 고위 성직자가 私室에서 입는 검은 색 사제의 평복의 일종이다.	
개두포	백색의 아마포로 된 장방형의 천으로 어깨에 걸치는 것이다.	구원의 투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으며 그리스도의 눈가리개를 암시한다.
장백의	어깨에서 발등까지 내려오는 백색의 의복으로 수단을 가리도록 길이가 길고 무릎을 꿇도록 폭이 넓다.	
중백의	장백의를 조금 짧게 변형한 것으로 길이는 무릎까지 오며 소매가 넓고 소매 끝단과 아랫단에 수를 놓거나 레이스를 달았으며 요즈음에는 전체적으로 레이스로 만든 중백의가 일반화되어 있다.	
소백의	장백의의 변형으로 장백의 대신 입는 것으로써 주름이 많이 잡히고 좁은 소매를 가지고 있으며 길이는 무릎 정도이다. 소백의 아랫단 부분, 어깨 및 소매의 커프스에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다.	
띠	장백의가 주름이 많고 길이가 길어서 땅에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게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견어 올려서 매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절제와 극기, 자비와 고통 등 결의의 상징으로 악마와의 투쟁, 참고 견디는 뜻이 있으며, 이는 빌라도의 채찍을 상징한다.
제 의	성직자가 장백의 위에 마지막으로 입는 半抽원형의 소매가 없이 앞, 뒤가 늘어지고 양옆이 터져 있는 종 모양의 걸옷이다.	예수의 명을 상징하고 애덕을 표시한다.
범 의	폭이 넓은 +자형으로 재단된 한 장의 천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고 소매 및 양쪽 술기를 박거나 혹은 같은 폭으로 재단된 두 장의 T자형 천이 소매 끝과 목둘레를 남기고 막은 모양이며 앞과 뒤 어깨에서부터 아래로 은색 또는 자색의 실로 두 줄의 무늬를 아름답게 수놓은 것(clavis)이 특징이며, 소매 끝과 목둘레를 장식하기도 한다.	성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성혈을 상징한다.
코 프	특별한 의식 시 행렬할 때 입는 것으로 발꿈치까지 닿는 망토 모양의 긴 예복으로 등 뒤에 두건이 달려 있다.	
영 대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좁고 긴 띠이다.	성직자에게 부여된 직책과 의무, 성덕을 상징한다.

수 대	길이 1m, 폭 7-10cm 내외의 양끝 부분이 조금 넓게 되어 중앙과 양쪽 끝에 각각 하나씩 세 개의 십자가가 있고 왼쪽 팔 위에 걸치는 것이다.	통회, 선행의 결과를 상징하는 동시에 노동과 봉사를 의미한다.
팔리움	대주교용 어깨걸이다.	교황의 충실을 의미한다.
주교관	교황이 주교에게 하사하는 모자로서 앞과 뒤 모양이 반두 아치와 비슷한 중산모로 뒤에는 두줄의 띠가 내려 있는 모자이다.	주교가 사도의 후계자이며, 진리의 적에게 가공할 신앙의 옹호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모 관	머리에 쓰는 사각 모자이다. 요즈음에는 모관 대신 베레모를 쓴다.	지위와 권위를 표시한다.
스켈캡	창이 없는 사람을 엮은 모양의 조그맣고 둥근 성직자용 모자이다.	명예와 위엄을 상징한다.

來와 意味를 지니고 있다. 그 외에도 신발과 양말, 장갑, 반지, 목지 등이 있다.

카톨릭 교회는 敎皇(Pope)을 頂點으로 하고 그 밑에 樞機卿(Cardinal), 大主教(Archfishop), 主教(Bishop), 神父(Priest)의 順序이며, 그 아래에 神父를 돕는 부제(Beacon)와 차부제의 順으로 피라미트식 組織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聖職者의 序列에 따라 典禮服의 色과 種類가 다르며, 一般的으로 序列이 높을수록 種類가 많아지고 複雜하다.

2. 改新敎

우리나라에 傳來된 基督教은 시대적 狀況 즉 鎖國政策, 日本의 迫害, 6.25動亂으로 의식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휴전 이후 社會가 安定되면서 의식을 회복하여 나날이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

典禮服에 대하여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으로 規定된 禮服이 없이 각 敎派

<표 2> 개신교 의복 특성 및 의미

특성, 의미 종 별	의복 특성	의 미
제네바 가운	검정색으로 된 가운으로 긴 소매가 달린 헐렁한 모양을 가졌으며 중앙에 비로드 덧단이 대어 있다.	하나의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사도적인 전통을 표상한다.
플랫 가운	검정색으로 된 길고 헐렁한 모양의 요크가 있는 가운이다.	
영대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좁고 긴 띠이며 敎會曆에 따라 色相이 다르다.	목사의 직책과 명예를 상징한다.

에 따라 자유롭게 着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黑, 白色의 제네바 가운이나 플랫가운에 領帶를 착용하고 있다.

한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에는 안수 받은 목사와 신학대학을 졸업한 傳道師가 있다. 목사들이 禮式을 인도할 때 대부분 검정색의 가운을 입고 領帶를 着用하며, 요즈음에는 여름철에 흰색 가운을 입으며,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傳道師들은 가운을 입지 않는다.

IV. 개신교 聖職者 예복디자인 開發을 위한 실증적 研究

1. 禮服 着用 實態 調査

禮服 着用 實態 調査는 개신교 목사들의 禮服 着用에 대한 사항을 說問 調査하는 것으로써 禮服

着用에 대한 인식, 着用與否, 디자인 개선에 대한 생각 등의 8개 문항과 목사의 연령 및 種派를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作成하였다.

설문지는 1998년 4월 20일 - 5월 15일 까지 1, 2차에 걸쳐 500부를 발송하여 225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205부(41.0%)가 최종 자료 처리되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들의 연령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監理敎가 41.0%, 長老敎가 33.2%, 聖潔敎가 26.8%의 순이었다.

2) 목사들은 예배 인도시 67.3%가 항상 禮服을 着用하고 있어 禮服着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聖職者는 禮服을 입을 때 聖職者로서의 正體性을 느끼며, 예배 인도시 禮服을 着用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服從의 태도와 奉仕하는 정신을 나타내야 하므로 禮拜 인도시 목사들의 禮服 着用은 꼭 必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禮服 着用에 대한 목사들의 생각은 꼭 및 가능한 한 着用하는 것이 좋다가 88.2%가 되어, 이는 개신교가 非 典禮的이어서 形式的, 外形的인 것을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禮服 着用은 禮拜와 연결시켜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목사들은 禮拜儀式을 갖추어야 할 때에는 禮服 着用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목사들의 禮服 着用이 禮拜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생각에는 影響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84.4%로 나타나 禮服 着用이 禮拜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禮服 着用이 禮拜의 엄숙한 분위기를 창조하고 禮拜儀式의 신성함을 表現하여 주며, 목사의 宗教的 職務를 나타내어 信徒들로 하여금 마음의 安定을 주므로 禮服 着用이 禮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현재 입고 있는 예복 디자인에 대한 생각에는 부분적으로 및 완전히 改善 되었으면 좋겠다고 69.3%로 나타나 많은 목사들은 디자인의 改善을 원

하고 있었다.

6) 목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禮服의 色相은 하절기에는 흰색 또는 아이보리색이 압도적이었고, 동절기에는 78.0%가 검정색으로 답해 전반적으로 季節에 따라 季節에 맞게 色相을 區分하여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색 가운데 6.8%, 9.8%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禮服 色相이 흰색, 검정색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節氣에 따른 領帶 사용에서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敎會曆에서 象徵하는 色相의 領帶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禮服 디자인에 대해 한국적인 요소를 適用시키는 것에 대한 생각에는 아주 좋다가 48.8%,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가 40.5%로 意見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입고 있는 예복 디자인이 改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으나(69.3%), 그 디자인 요소가 한국적인 요소는 아닌 것을 意味하였으며, 또한 本 研究 對象의 연령이 높아서, 연령이 높을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變化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온 結果라고 풀이 될 수 있다.

2. 改新敎 禮服디자인

1) 가운

가운의 실루엣은 품이 조금 넉넉한 H-라인으로 하였다. 앞면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누른 주름이 있고, 뒷면에는 뒷 중심에 맞주름을 놓고 왼쪽, 오른쪽에 각각 누른 주름을 놓아, 누른 주름이 주는 단정함과 機能性を 表現하였다.

목둘레선은 V-네크라인으로 하였으며, 지퍼를 사용한 앞트임으로 하여 혼자 容易하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소매는 깊이 파인 道袍 形式의 진동둘레와 속에서 커프스를 이용하여 손목을 조일 수 있도록 하여 機能的이면서도 위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운의 색상은 흰색, 검정색, 회색을 비롯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교회력에 따라 새로운 가운의 특징적 색상을 제시하였다.

2) 영 대

頌帶는 教會曆에 맞추어 色相을 구분하였고, 그 절기를 象徵하는 文樣을 수놓았다.

降臨節의 頌帶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象徵하는 '태양과 XP', 'XP와 A.O.'의 文樣을 사용하였으며, 復活節의 頌帶는 죽음과 같은 어둠으로부터 復活하신 것을 象徵하는 '태양과 XP', '십자가와 면류관'의 文樣을 使用하였다. 四旬節의 頌帶는 그리스도의 苦難을 象徵하는 '십자가와 감는천', '가시 면류관과 못'의 文樣을 수놓았으며, 聖誕節의 頌帶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誕生을 알리는 '말 구유'를 使用하였다. 主顯節의 頌帶는 '주현의 별'과 '사방으로 뻗친 십자가'를, 오순절의 영대는 성령 강림의 '비들기', '일곱갈래 불꽃'을, 특별한 기념일을 제외한 모든 주일에 쓰는 영대에는 '회랍 십자가', 'XP', 'A.O.'의 文樣을 使用하였다. 한편, 장례식이나 재해를 위해 기도할 때 쓰이는 頌帶에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나타내는 '갈보리 십자가'의 文樣을 使用하였다.

V. 結論 및 提言

1. 結論

본 研究는 基督教 聖職者 儀禮服飾에 대한 研究로써 文獻 및 調查 研究 方法을 使用하였으며 새로운 改新教 聖職者 禮服 디자인을 提示하였다.

본 研究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舊約聖書時代에는 大祭司長과 一般 祭司長이 있었으며, 이들은 많은 規制와 指示에 따라 禮服을 입어야 했다. 禮服의 種類로는 겉옷, 에봇과 띠, 어

개걸이, 가슴받이, 반포 속옷과 띠 및 관 등이 있었다.

新約聖書時代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出現으로 大祭司長 制度 및 그에 따른 禮服이 필요없게 되어 平常服으로 禮服의 意味를 나타냈다.

2) 카톨릭 教會의 禮服은 種類가 다양하고 자기 독특한 由來와 意味를 지니고 있다. 禮服의 種類로는 수단, 시마, 개두포, 장백의, 증백의, 소백의, 띠, 제의, 법의, 코프, 영대, 수대, 팔리움, 주교관, 모관, 장갑, 반지 및 목지 등이 있으며 一般的으로 序列이 높을수록 種類가 많아지고 複雜하다. 改新教會에서는 미국 教會의 影響으로 規定된 禮服이 없이 각 教派에 따라 자유롭게 着用하고 있으며, 一般的으로 黑,白色의 제네바 가운이나 풀핏 가운에 頌帶를 着用한다.

3) 教會曆에 따른 象徵 文樣과 色彩는 다음과 같다.

상징색, 문양 교회력	색	문 양
강림절	보라색	태양과 XP, 메시아적 장미
주현절	흰 색	별, 세 왕관, 작은 십자가들로 이루어진 십자가
성탄절	흰 색	말구유, 전령 모습의 천사
사순절	보라색	가시 면류관과 못, 고난의 십자가와 종려나무
오순절	빨강색	일곱갈래 불꽃, 일곱등불

한편, 특별한 記念日을 제외한 날의 예전 색깔은 녹색이 使用된다.

4) 改新教 禮服 着用 實態에 따른 새로운 聖職者 禮服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가운의 실루엣은 품이 조금 넓은 형태의 H-라인으로 하여 앞면(왼쪽과 오른쪽)에 누른 주름이 각각 하나씩 있으며, 뒷면은 뒷 중심에 맞추름 하나, 양

쪽(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앞면과 같이 누른 주름을 주어 활동하기에 편리하게 함과 동시에, 누른 주름이 주는 단정함을 表現하였다.

목둘레선은 남성만의 독특한 V-zone을 나타내기 위하여 V 네크라인으로 하였으며, 트임은 혼자 용이하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지퍼(zipper)를 사용한 앞 트임으로 하였다. 소매의 형태는 깊이 파인 道袍 形式의 진동둘레와 손목은 속에서 커프스로 처리하여 기능적이면서도 위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운의 색상은 검정색, 흰색, 회색을 비롯하여 교회력에 따라 새로운 색상(녹색, 분홍색, 갈색, 청색)의 가운 등을 제시하였으며, 領帶는 敎會曆에 맞추어 色相을 區分하였고, 그 節氣를 象徵하는 文樣을 수놓아 영대의 단순함과 變化를 주고 禮拜의 분위기를 더 한층 경건하게 함과 동시에 信徒들로 하여금 敎會曆의 意味를 같이 느낄 수 있게 하였다.

2. 提 言

이상의 研究를 통하여 앞으로의 課題에 대한 提言은 다음과 같다.

첫째, 基督教의 儀禮服飾은 人間이 하나님께 禮拜드리기 위하여 着用한다는 점과 그 衣服을 통한 하나님의 崇拜라는 점을 생각하여 神聖과 絕對性을 強調함과 아울러 儀禮服飾의 本來 意味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둘째, 基督教 목사 직분뿐만 아니라 職制(성가대, 장로, 기도 인도자, 성가 인도자 등) 및 宗派(구세군, 정교회, 성공회 등)에 따른 基督教 전반의 宗敎服飾史的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基督教 歷史와 더불어 基督教 信仰精神에 바탕을 둔 象徵的 色彩 및 文樣을 가지고 敎會曆에 따라 다양하게 變化를 준 儀禮服飾 디자인 開發이 이루어져 많은 基督教 聖職者들이 同感하여 着用하도록 하여야겠다.

넷째, 禮拜儀式 및 儀禮服飾의 토착화 운동이 高調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 固有의 傳統文化와 풍습, 思想이 깃든 儀禮服飾 디자인 開發이 이루어져야겠다.

참고문헌

- 김 현, “전례복에 표현된 미 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 사범대학 논문집 제20집, 1982.
- 성 갑식 편, 그리스도 대사전,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2.
- 유 선호, 교회력과 색깔 사용의 위협, 서울: 하늘기획, 1966.
- 이 기문 외 6인 편집, 기독교 대백과 사전, 제1권, 제2권, 제12권, 제13권, 1980-1988.
- 전 인찬 편, 성서 대백과 사전, 제7권, 제8권, 서울: 기독지혜사, 1980-1984.
- 정 장복, 예배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6.
- 정 철범, “교회력의 이해와 실천”,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1, 11월.
- 조 선출, 그리스도교 대사전,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2.
- 총회예식서 수정위원회 편, 표준예식서, 서울: 대한장로교출판사, 1998.
- Horn, Marilyn J., Gurel Lois M.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 New Catholic Encyclopaedia, vol.VIII. Washington D. C.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67.
- Phili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II. Mich: WMB, Eerdmans Publishing Co., 1910.
- Raymond Abba, 허 경삼 역,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4.
- The Catholic Encyclopaedia, vol.III. N. Y.: The Encyclopaedia press, Inc., 1913.